자성 가운데서 부처를 찾으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목격도존(目擊道存)이며 촉목보리(觸目菩提)이니
재재처처(在在處處)에 즉위유불(卽爲有佛)이로다.

자성(自性)가운데서 부처를 찾을지언정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맙시다.
부처님은 본래(本來) 나지 않았고 법(法)은 멸(滅)함이 없습니다.
진불(眞佛)은 무형(無形)이요 진법(眞法)은 무상(無相)입니다.
찾아도 생명(生命)의 참 모습은 모양이 없고
깨닫지 않아도 만상(萬象)은 참다운 사람을 이룹니다.
태어남이 없는 법계(法界)에는 오고가는 자취가 없지만
눈앞에서 비로자나(毘盧遮那)는 법륜(法輪)을 굴립니다.
무명(無明)은 일체제불(一切諸佛)이 깨달음을 이룬 곳이요
육도(六道)는 중생(衆生)과 부처님이 취(取)하고 버린 집입니다.
진여법계(眞如法界)가 이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니
일진일색(一塵一色)이 여래(如來)의 법신(法身)이 아님이 없습니다.
일체빛깔과 소리는 부처님의 지혜(智慧)의 눈이며
산하대지(山河大地) 산빛 물빛이 진리(眞理)의 광명(光明)입니다.
곳곳에서 만물(萬物)이 본지풍광(本地風光)을 드러내고
지옥(地獄)에 있는 중생(衆生)이 본분사(本分事)를 밝히니
부처님은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왕궁(王宮)에 내려왔으며
어머니(摩)께서 태어나기 전에 중생(衆生)들을 다 제도(濟度)하였습니다.
회마(會 : 알겠는가)?
꽃이 피면 한량없는 세계(世界)가 일어나고
티끌이 모여 불국토(佛國土)를 이룹니다.
한 발자국 드니 그대로가 부처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부처님께서는 어두운 사바(娑婆)를 밝히고 우매(愚昧)한 중생(衆生) 바른길로 이끌기 위하여 생명(生命)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사회(人類社會)는 이중적 사고(二重的 思考)의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유(自由)와 평화(平和)를 외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소유(所有)의 극대화(極大化)를 위하여 투쟁(鬪爭)과 갈등(葛藤)으로 분열(分裂)과 혼란(混亂)을 야기(惹起)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物質)이 주인(主人)되는 전도(顚倒)된 세상(世上)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욕망(慾望)으로 참삶을 외면(外面)하고 물질(物質)에 종속(從屬)되는 세상(世上)은 결코 정의(正義)롭고 행복(幸福)한 세상(世上)이 아닙니다.

이성(理性)의 마비(痲痺)로 인한 분별(分別) 없는 팽창추구(膨脹追求)는 불신(不信)과 투쟁(鬪爭)을 조장(助長)하여 인류(人類)의 평화(平和)와 균형(均衡)을 파괴(破壞)할 뿐이며, 인간(人間)과 자연(自然), 세계문제(世界問題)를 깊이 고뇌(苦惱)하지 않는 단순(單純)한 물리적(物理的) 삶은 인간(人間)의 미래(未來)를 어둡게 합니다.

우리는 행복(幸福)한 삶을 위하여 진리(眞理)와 자비(慈悲)와 지혜(智慧)로 청정(淸淨)하고 안락(安樂)한 부처님 세상(世上)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자연(自然)의 섭리(攝理)에 순응(順應)하는 세상(世上), 타인(他人)과 더불어 하나되는 세상(世上), 밝은 지혜(智慧)가 헛된 욕망(慾望)을 다스리는 절제(節制)된 세상(世上)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부처님 세상(世上)입니다.

진심(眞心)이 시불(是佛)이며, 이순(理順)이 시법(是法)이요, 공협(共協)이 시승(是僧)이니, 이와같은 삼보(三寶)가 규합(契合)하며 저절로 부처님 세상(世上)이 됩니다.

有情萬物來下種(유정만물래하종)
因緣生果自還受(인연생과자환수)
世事淸濁主在心(세사청탁주재심)
自他拱手安養國(자타공수안양국)

뜻이 있는 곳에 만물에 씨가 되고
원인 되는 곳에 과가되어 돌아오네
세상의 모든 일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으니
모든 사람 힘을 모아 안양국을 세우리라

지혜로운 원력으로 공덕의 탑 쌓으라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사는 일이 잠깐의 꿈이라
꿈을 깬 뒤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부처님은 간곡히 일러주셨네.

사람들아, 지고 있는 무거운 업 내려놓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원력을 세워
공덕의 탑을 쌓으라.

부처님오신날은 모두가 그렇게
부처님 닮아 부처님 되어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

바다 가운데 해 솟으니 부처님이 나투시고
산바람 걷히자 나타난 검푸른 봉우리
그대로 부처님의 육계상일세
달이 둥실 뜨고 보니 일 천 강에 달이러니
천 강의 달이 하나같이 휘영청 밝더구나

日出海中開佛面 嵐收峯黛露靑螺
(일출해중개불면 남수봉대로청라)
一月當天千江月 千江月攝一月明
(일월당천천강월 천강월섭일월명)

법어 전문은 www.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놓고 본래면목으로 돌아가자

진각종 총인 **혜일 대종사**

진언행자, 그리고 불자 여러분!

오늘날 중생세계는 물질문명의 혜택과 그 편리함이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또한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혜택과 그 편리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오히려 갈등과 불신으로 반목과 질시는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인간만을 위하고, 나만을 위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만을 위하고, 자신이 속한 국가만을 위한 행동은 끝이 없으며, 그러한 결과 마음은 갈등으로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으며,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의 위협 속에 싸여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투신 날을 맞이하여, 욕심으로 나와 너를 가르고, 그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성을 내고, 나와 너 그리고 온 우주가 둘이 아닌 줄을 몰라 어리석은, 이 나를 놓고 이 욕심을 놓고 어리석음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본성, 본래의 진면목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전 인류가 전 중생들이 모두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각자의 부처자리로 돌아가 그 빛을 향유합시다.

뭇 중생이 탐진치에 물들어 집착을 보이니
이 세상이 그대로 지옥의 불바다요 아수라의 싸움터라.
뭇 중생이 한 생각 돌려 집착을 놓고 보니
이 세상이 그대로 일마다 불작불행(佛作佛行)이로다.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부산 안국선원 전경

"좋은 인연입니다"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선원장 수 불

■ 법인사무국 : 051)583-0999 / 부산 : 051)583-0993 / 서울 : 02)732-0772 / 미국 : 휴스턴 0011)713-467-0997 뉴욕 0011)917-710-6704 / 뉴질랜드 오클랜드 001)649-4126442 / 홈페이지 www.ahnkookzen.org

삼라만상이 진리 묘법

관음종 종정 죽산 스님

佛來佛去又佛來(불래불거우불래)
花笑鳥歌是亦佛(화소조가시역불)
偏照光明無餘地(편조광명무여지)
何方世界有暗那(아방세계유암나)
人人各持自燈華(인인각지자등화)
萬像無非眞妙法(만상무비진묘법)

부처님이 오시고 가고 또 오시네.
꽃이 웃고 새들이 노래하여 이 땅에 오셨네.
두루 광명이 남김없이 모든 중생을 비추니
시방세계 그 어느 곳에 어둠이 있으리.
사람들 각각 스스로의 등을 밝히니
삼라만상 모두가 참된 진리의 묘법이구나.

마야부인 몸빌려 오신 까닭은

보문종 종정 혜안 스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연등불로부터 성불의 수기를 받아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마야부인의 몸을 빌려 이 사바예토에 나투신 까닭은 무엇인가?

윤회전생하며 생사의 괴로운 삶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래 갖추어진 여래의 씨알을 열어 보여주고 깨달아 증입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당신과 똑같은 지혜와 덕성을 두루 갖춘 귀중한 생명체임을 깨달으셨기에 중생들의 처지가 안타까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무상한 세월 속에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끊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찬탄하고자 밝힌 연등 앞에서 무명으로 뒤덮인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본래

깨달음 내 마음에 있으니

원융종 종정 일공 스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불교는 종교를 초월하여 그 어느 것으로도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 뜻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

"하늘과 땅 위에 나 홀로 존귀하네. 온 세상이 고통 속에 헤매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일곱 발걸음과 함께 탄생게(誕生偈)를 설하신 것도 스스로 지혜를 깨달아 가는 본성이 있음을 일컬음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존귀함, 평등함과 중생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

모든 사람 평등함 일깨워

총지종 종령 효강 대종사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오며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이 평등하고, 과보가 평등하고, 지혜가 평등함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잘난 이와 못난 이, 재산 많은 이와 적은 이, 많이 배운 이와 그렇지 못한 이, 힘이 있는 이와 힘이 없는 이의 구별은 세속의 법입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 아니고 너와 내가 둘 아니라는 부처님의 불이법문을 되새겨 우리 모두가 마음속의 차별을 걷어내고,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불이정신으로 서로 차별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차별하는 말도 하지 말고, 차별하는 마음마저 없애어 이 땅에 진정한 평등을 이뤄 극락정토가 하루 빨리 건설되기를 기원합시다. 성도합시다.

대승의 道 크게 깨우치길

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녹수청산은 자연 그대로가 비로자나불이요

해상 파도 소리 넓고 긴 것은 전부 부처님 법문이로다.

누가 나에게 묻기를 불교의 어느 종단 소속이냐고 물으면

금강반야의 수행과 지혜의 힘이다 라고 말하리라.

부처님 오신날 2549년을 맞아 전세계(全世界)의 모든 수법제자(受法弟子)와 불자(佛子)들은 일불제자(一佛弟子)로서 대승(大乘)의 도(道)를 자각(自覺)하여 크게 깨우침을 기원하노라.

중도의 길 걸어갑시다

법륜종 종정 정각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미혹한 중생들에게 참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와 나, 선과 악,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인 분별심을 버리고 현실이 용납되는 상황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회하고 도와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광명이 빛나는 오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높이 들어 우리의 마음 속에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고 마하반야의 횃불을 높이 들어 무명에 싸인 대지를, 고통에 싸인 대지

오색광명 비춰 나투시네

열반종 해곡 종정

사바세계가 삼독으로 암흑인데
오색광명 비추며 나투시다
아!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일체 중생에 불성이 있는데
번뇌망상의 늪에서 헤매어
몽상에서 깨어나
열반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려 나투시었네
본래 정토와 예토가 따로 있는가
어리석음이 죄이지

오늘은 자성 인정받는 날

불입종 종정 경조 스님

부처님 오신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산천초목과 금수인천이 본래 갖춘 자성을 인정받는 날입니다. 부처님은 자성의 참모습을 확인시키시러 이 어지러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삼라만상 일체가 원만함을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뜻이 이러하거늘, 오시고 싶어서 손수 오셨으니 수원수생이요, 중생을 위해 오셨으니 사생지자부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편안치가 않습니다. 윤회의 물굽이에 떠밀리어 가면서도 서로의 이익만 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누리는 것이 아

밝은 눈 아니면 모르네

무량종 종정대행

혜안 스님

東海金鳥入無量
(동해금조입무량)
西山玉兎遊智異
(서산옥토유지이)
釋誕幾千來又來
(석탄기천래우래)
慧眼能智見不覺
(혜안능지견불각)

동해의 금까마귀 무량수에 날아들고
서산의 옥토끼는 지리산에 뛰어논다.
부처는 수천 번씩 오고 오고 또 오건만
밝은 눈 아니면 보고서도 모른다네.

본래면목 찾아드네

미륵종 종정대행

송정 스님

무주공방에
길 잃은 나그네여
사나운 코끼리가
광야를 휘젓도다
폭우광풍 몰아치니
사대육신 무상하다
한평생이 얼마건데
닦지 않고 노닐소냐
일심청정 부동지에
본래면목 찾아드니
미친놈이 잠에 들고
장님이 눈을 뜨네
어허! 광명이여, 부처님이시여!

백가지 꽃 다투어 피는 날

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오늘은 백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성인과 범부가 함께 모여 손을 잡고 즐거워 웃노니 노파의 진솔한 마음으로 밝힌 하나의 등불은 천등 만등이 되어 시방삼세를 장엄합니다.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오고 감이 자유로워 세상시비에 얽매이지 않고 남남북녀들이 서로 서로 짝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마야부인 수고로움은 하늘과 땅에 사무치는데
가비라성 일곱걸음이여 백두에서 한라에 이르도다! 나무석가모니불.

등 밝혀 탐진치 놓아라

정토종 종정

지산 스님

계행을 깨뜨리고 남의 복전밭이 되려는 것은 마치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을 업고 하늘을 오르려는 것과 같다. 자기 허물도 벗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죄를 풀어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계행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공양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니 마음속에서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또한 괴로움을 받게 되고, 마음속에서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또한 즐거움이 따라온다.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데는 지혜보다 나은 게 없고 분노를 다스리는 데는 자비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오늘 하루라도 밝은 등을 켜 탐진치를 놓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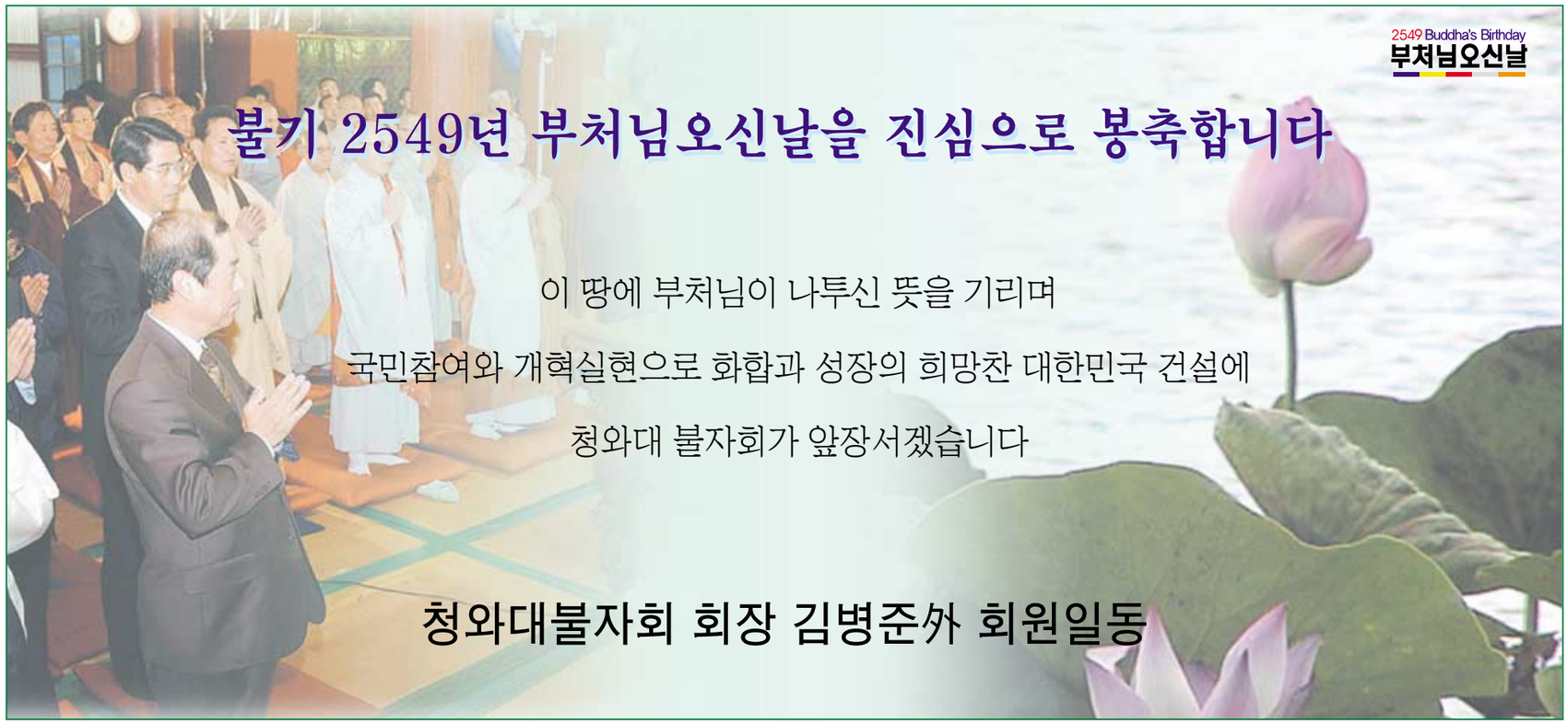
바른 길 제대로 못 보네

한국미륵불교 종정

법련 스님

세존(世尊)은 팔십수(八十壽)에 열반(涅槃)에 드시고 중생(衆生)은 팔만사천법문(八萬四千法門)에 의지하여 도(道)를 닦는도다.

생(生)의 습(習)이 탐진치요, 이가 인(因)이 된 삶은 교만과 아상과 잘난 척하는 것뿐일세.

돈을 잘 모으는 이는 앞선 훌륭한 분이고 돈을 못 모은 자는 낙오자로 모자라는 자라고 칭하니 도는 어디에 있고 도는 무엇으로 닦는 것인가?

세존(世尊)은 바른 길을 바로 가리켰으나 잘못 보고 잘못 가고 왔으니 어찌 안타깝지 않으리오! 세존이 지금 오셨다면 행자여 그대는 무엇이라 할 것인가? 나는 즉비보살(卽非菩薩)이라 할 것이다.